

아기 호랑이들 “요코하마 별거 아니네”



박진두

KIA 오키나와 연습경기 3-3
박진두 팬스 강타 적시 2루타
최원준·신범수·이진영 활약
152km 한승혁 2이닝 무실점

KIA 타이거즈의 ‘아기 호랑이’들이 연습경기를 통해 호랑이 본능을 깨운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17일 우라소에 구장에서 일본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와 연습경기를 치렀다. 앞선 두 번의 연습경기에서 2패를 기록했던 KIA는 아기 호랑이들의 활약 속에 이번에는 3-3 무승부를 신고했다. KIA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졸 루키 3인방’인 최원준, 신범수, 이진영이 전면에서 나서 정에 멤버로 무장한 요코하마를 상대했다. 최원준이 투타자 겸 3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8번 타자로 나온 신범수는 포수 마스크를 쓰고 안방을 지켰다. 9번 자리에 선 이진영은 우익수로 출격했다. 가장 먼저 타석에 들어선 최원준은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첫 타석에서 집중력 있는 승부로 불넷을 골라내며 박수를 받



최원준

신범수

이진영

았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기습번트를 날리며 1루에 있던 친구 이진영을 2루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신범수는 타석에서 2타수 무안타로 돌아섰지만 안방을 지키며 수비 실력을 보여줬다. 5회까지 유창식·홍건희와 호흡을 맞춘 신범수는 안정된 수비로 차세대 안방 마님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주니치의 첫 연습경기에서 대타 안타를 기록했던 이진영은 세 번째 연습경기에서 두 번째 안타를 신고했다. 명품 수비로 보살도 하나 올렸다. 6회말 이진영은 선두 타자 츠츠고의 우익 선상에 떨어진 타구를 잡은 뒤 2루로 레이저 송구를 하며 타자주자를 잡아냈다. 첫 스프링캠프에 나선 고졸 3년차 박진

두도 ‘아기 호랑이’들의 활약에 함께했다. 0-2로 뒤진 4회, 좌전 안타로 출루한 김호영이 도루에 이어 김주형의 적시타 때 호흡을 밟았다. 폭투로 만들어진 무사 2루, 박진두가 팬스를 때리는 클치한 2루타를 날리며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렸다. 신에 선수들의 활약으로 눈길을 끈 타선, 마운드에서는 한승혁에게 눈길이 쏠렸다. 한승혁은 8·9회를 1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며 주니치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호투를 선보였다. 한중 안정된 폼과 제구는 물론 이번에도 152km의 강속구를 찍으며 레조의 컨디션을 보였다. 이날 한승혁의 최저 구속은 148km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모든 것이 좋아졌다(Everything’s better)”며 차근차근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강정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튼턴에서 손조롭게 훈련하고 있다고 17일(이하 한국시간) 전했다. 강정호는 이 매체의 기자에게 영어로 “좋아요(good)”라며 수술과 치료, 재활이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브레이튼턴에서 재활훈련을 해온 강정호는 최근 구단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야구 훈련을 시작했다. 피츠버그는 이번 주 투수·포수 소집을 시작으로 브레이튼턴에서 스프링캠프에 들어간다. 강정호는 그러나 자신이 4월 개막전부터 경기에 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답

강정호 “Good”

스프링캠프 타격연습 돌입...“2루 충돌 방지법 지지”

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9월 시카고 컵스 경기에서 수비하다가 상대 선수 크리스 코글란의 거친 슬라이딩에 부딪혀 무릎을 다쳤고, 수술대에 올랐다. 당시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회복 기간을 6~8개월로 내다봤다. 3월 중순이나 5월 중순께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중요한 것은 강정호의 몸 상태다. 다친 부위가 깨끗이 낫는다고 해도,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강정호는 지난주 달리기를 시작했고, 배팅케이지에서 타격 연습에도 돌입했다.

16일에는 첫 송구 연습도 했다. 이제 주루 연습과 타석에서 하는 타격 연습도 할 전망이다. 강정호는 수술과 재활을 겪은 상황에 “반반이다”라며 뒤쉬운 감정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는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휴식을 취하고 준비할 기회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회복 기간에 미국 드라마인 워킹 데드, 브레이킹 배드, 안투라지 등에 폭 빠져 지냈다고도 전했다. /연합뉴스

자신을 다치게 한 코글란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고의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코글란은 단지 병살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유격수로 출전한 강정호는 병살을 처리하려고 2루를 지키고 있었고, 2루로 향하던 코글란은 강정호가 공을 1루에 제대로 던지지 못하게 하려고 강정호의 왼쪽 무릎을 겨냥해 슬라이딩하다가 큰 충돌을 일으켰다. 강정호뿐 아니라 뉴욕 메츠의 루벤 데하라도 이런 충돌로 큰 부상을 당하자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최근 ‘2루에서의 충돌 방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는 “동의한다. 지지한다.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환영했다. /연합뉴스



홍경환(오른쪽 두 번째)이 17일 노르웨이 예비크의 올림픽 카베른홀에서 열린 2016 릴레함메르 동계유스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히비 교차

남 500m 황대헌 실격·홍경환 어부지리 우승
여 500m 김지유·이수연 실격...금·은 놓쳐

릴레함메르 동계유스올림픽
쇼트트랙 유망주 홍경환(서현고)이 2016 릴레함메르 동계유스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에서 우승했다. 홍경환은 17일 노르웨이 예비크의 올림픽 카베른홀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500

m 결승에서 행운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결승전에서 홍경환은 동료인 황대헌(부흥고), 요시나가 가즈키(일본), 마웨이(중국)와 함께 레이스를 펼쳤다. 지난 14일 남자 1,000m에서 우승한 황대헌이 3바퀴째부터 선두로 치고 나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홍경환이 2위로 경기를 마쳤다.

하지만 황대헌은 추월하는 과정에서 마웨이를 밀었다는 판정을 받아 실격처리됐다. 황대헌의 2관왕이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결국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홍경환이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홍경환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메달을 생각지 못했다”며 “마지막 코너에서 황

대헌과 마웨이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보고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노렸다”고 말했다. 여자부 500m 결승에서는 한국 선수 2명이 1, 2위를 차지했지만 모두 실격처리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여자 1,000m 결승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낸 김지유(잠실고)와 이수연(서현고)은 이날 500m 결승에서도 나란히 1,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메달 잔치를 벌이는 듯했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임피딩 반칙이 선언돼 실격 처리됐고, 김지유는 2관왕 기회를 날렸다. /연합뉴스

정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



야구·배구·농구 2인 챔피언십 나올까

한·중·일 교류전 추진...관광 등 산업 발전 기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는 유럽 각국 프로축구리그 우승팀을 비롯한 상위팀끼리 기량을 겨뤄 유럽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대회다. 1955-1956시즌 유럽클럽선수권대회로 시작해 지금은 국가대항전인 월드컵이나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팀끼리 맞붙는 한·일 톱매치가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리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 중국, 필리핀 프로 농구팀이 출전하는 2015 아시아 프로농구 챔피언십이 인천에서 치러졌다. 2014-2015시즌 한국프로농구 챔피언십결정전에서 맞붙은 울산 모비스, 원주 동부를 비롯해 중국 라오닝, 필리핀 토크 앤 텍트스 등 4개 팀이 출전했다.

게다가 TV중계권료, 입장 수입 등을 통해 2014-2015시즌의 경우 챔피언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 우승 상금으로만 1050만유로(약 143억원)를 안겨줄 수 있을 정도로 해마다 대규모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투자활성화 방법의 하나로 프로스포츠 교류에 눈을 돌렸다.

나흘간 7경기를 치러 모비스가 우승컵을 들어 올린 이 대회는 경기당 평균 3000여 명의 관중이 관람했다. 외국인 관중도 500여 명이 나왔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 간 교류전을 통해 프로스포츠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외 관광 등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꾀해 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프로농구를 시작으로 올해 한·중·일 배구, 이르면 내년에는 야구 등으로 정기리그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동아시아 국가 간 프로스포츠 교류전은 있었다.

KBO의 경우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야구 한류 콘텐츠 조성 계획’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포스트시즌 기간에 중국의 관광·교류 분야 인사 30여 명을 초청해 한국의 야구문화를 소개하는 등 일찌감치 중국과 교류에 관심을 뒀다.

프로축구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중·일 챔피언스리그가 개최됐다. 이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챔피언스리그로 확대됐다.

정부는 여행업계와 함께 프로스포츠 교류전 관련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야구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리그 우승팀끼리 시즌 종료 후 대결하는 ‘아시아시리즈’가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2013년 대만 대회를 끝으로 중단됐다.

아울러 치어리더나 ‘치맥’(치킨과 맥주) 등 한국 프로스포츠의 응원문화, K-팝 등 한류 공연을 연계해 중국,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판 ‘스캇 보라스’ 나올까

정부 “연내 스포츠 에이전트 육성 대책 마련”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들에게는 천사, 구단주들에게는 악마로 불린 스캇 보라스와 같은 스포츠 에이전트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서울지방번호사회는 2014년 12월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KBO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정부가 스포츠 에이전트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7일 발표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올해 안에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상 전문가인 에이전트가 나설 경우 선수 연봉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프로야구 구단의 적자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에이전트 제도 도입은 구단의 재정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일본도 등록 선수 850명 중에서 3% 정도인 30명 정도만 에이전트를 쓸 정도로 에이전트는 소수의 고액 연봉 선수만을 위한 제도다. 거대 에이전트가 등장해 프로야구 시장을 위악시킬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스포츠매니지먼트 산업을 키우기 위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투자, 프로그래밍 개발 관련 용자 등을 제공하겠다. 4분기까지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에 대한 운영지침과 우수 에이전트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프로야구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에이전트 제도 시행시기를 결정하고, 대리인 조건 등 불합리한 규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상 전문가인 에이전트가 나설 경우 선수 연봉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프로야구 구단의 적자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에이전트 제도 도입은 구단의 재정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일본도 등록 선수 850명 중에서 3% 정도인 30명 정도만 에이전트를 쓸 정도로 에이전트는 소수의 고액 연봉 선수만을 위한 제도다. 거대 에이전트가 등장해 프로야구 시장을 위악시킬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주로 선수를 대신해서 구단과 연봉협상을 하고 신규 입단, 이적, 광고 출연 등을 담당하는 대리인이다. 현재 국내 프로스포츠 중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는 종목은 프로축구가 유일하다. 프로야구는 2001년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시행시기 미흡의 및 절차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KBO는 에이전트의 자격을 변호사로서만 제한하고 있고, 에이전트 한 명이 2명 이상의 선수를 대리할 수 없게 돼 있어 에이전트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상 전문가인 에이전트가 나설 경우 선수 연봉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프로야구 구단의 적자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에이전트 제도 도입은 구단의 재정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일본도 등록 선수 850명 중에서 3% 정도인 30명 정도만 에이전트를 쓸 정도로 에이전트는 소수의 고액 연봉 선수만을 위한 제도다. 거대 에이전트가 등장해 프로야구 시장을 위악시킬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에이전트 육성은 선수 권익 차원에서든 꾸준히 논의돼온 문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상 전문가인 에이전트가 나설 경우 선수 연봉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프로야구 구단의 적자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에이전트 제도 도입은 구단의 재정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일본도 등록 선수 850명 중에서 3% 정도인 30명 정도만 에이전트를 쓸 정도로 에이전트는 소수의 고액 연봉 선수만을 위한 제도다. 거대 에이전트가 등장해 프로야구 시장을 위악시킬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